노조 비상대책위 구성

위원장 사퇴…일용직 노조가입·관리직 인사이동 문제 해결 못해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30일 노조 임시총회중 김병수(의대·기능직)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장의 사퇴는 김병수 위원장이 일용직·사무보조직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관리직 부당인사이동 등의 안건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회의 단체협약안을 확정시킨 후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원들의 조합 내부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딪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일용직·사무보조직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관리직 이훈용(사대·관리직)씨 부당인사이동에 대해 "이 두가지 문제는 각 직종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시각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현 노조집행부로선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며 "지금의 노조는 과도기적 단계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퇴를 공식 표명한뒤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기하고 각 직능별로 1인씩의 비상대책위원을 추천했다.

추천된 위원은 사무직 이병수(교육대학원 교무주임)씨, 기술직 박용암(사무처 관리과)씨, 기능직 이성재(영선반)씨, 관리직 이진우(자연사 박물관)씨, 환경직 이진욱(정경대 교수회관 관리인)씨로 이중 1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3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한편 지난 30일 오후 3시 서울·수원 조합원 1백56명이 참가한 가운데 A.V센터 2층 소극장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일용직·사무보조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관리직 부당인사이동 △장백기 전위원장 복직투쟁 평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위원장은 애초에 대의원회의가 결정한 단체협약안을 확정시킨후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

조합원들은 관리직 부당인사이동이 노조의 규약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훈용씨의 경우 단체협약의 교섭위원 역할까지 맡고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더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위원장과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났다.

이번 위원장 사퇴는 그간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과 요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던 점을 들어 위원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나타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조원과 계속 갈등을 빚어온 현위원장단의 사표제출에 따라 노조는 비상대책위의 논의를 거쳐 신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개·보수공사 한창

공대앞 조경사업 및 옥상 방수공사등

수원캠퍼스 관리과는 공과대학 관앞 통일광장 조경사업등 개·보수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잔디만을 심은 상태인 통일광장 조경사업은 거수목과 자연석등을 장식해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이게 할 계획으로 이번 학기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대, 산업대, 체과대등 3개 건물 옥상및 체과대 실내농구장의 방수공사도 오는 10일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공과대학관 식당및 지하 창고공간에는 3개의 강의실로 이용하기 위해 개조중이며 오는 30일경 완성될 예정이다.

오현철 정책위장 불법 연행

서울총학, 31일 항의 시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달 31일 오현철(법학·4) 총학생회 정책위원장의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회기파출소를 습격하는등 교문앞 시위를 1시간30분가량 벌였다.

오현철군은 제21대 법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중 지난 31일 정오에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 소속 형사 3명에게 한국외국어대앞에서 연행되어 현재 청량리경찰서에 수감중이다.

한편 이날 시위도중 천준호(사학·3) 문리대 사회부장등 많은 학생들이 전경들이 던진 돌과 사과탄에 부상을 당했다.

한편 최성용(법학·4)부총학생회장은 "계속적인 학우들의 연행은 현 정권이 안정적 지배도구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오늘 총대의원회 의장 선출

입후보 자격요건에 관한 회칙개정 마무리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오늘 5시 체육과학관 시청각실에서 차기총대의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가진다.

대의원의장 선거는 경선일 경우 전체 대의원 과반수출석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단독후보일 경우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을 통해 선출된다.

한편, 기존의 대의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차기 대의원의장 선거 관리를 위한 대의원회 건준위가 현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초에 실시되었던 대의원의장 선거가 연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대의원의장선출에 대한 회칙을 지난달 22일 개정하였다.

총 6개항에 걸쳐 개정된 이번 조치에서 총대의원의장 후보등록요건으로 '상임위원회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라는 항목을 폐지하고 ▲현재 재학중인 자로서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 ▲대의원 정수 4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은자에 한해 후보등록을 받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회칙개정을 통해 후보단일추천에서 복수추천이 가능하게 됐으며 대의원의장입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및 자격심사는 건준위에서 실시하고 자격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반려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박홍근군 총학 단독 출마

총여학생회 윤선희양도, 지난 1일 후보 마감

서울캠퍼스 제24대 총학생회와 제6대 총여학생회 선거 입후보자에 각각 정 박홍근(국문·4)군·부 윤종군(사학·3)군, 정 윤선희(신방·3)양·부 박부용(사학·3)양이 단독 출마하였다.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박홍근군은 현재 문리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국의 꽃, 힘, 미래 경희청년아! 참다운 삶의 주인으로, 격동하는 역사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아가자'는 구호를 내걸고 자주적 학생회 건설, 자주학원 건설, 민주정부수립과 조국통일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제6대 총여학생회장에 입후보한 윤선희양은 현 신방과 3대 학회장으로 '새날의 여성이여, 이제 평등의 신념으로 해오름을 선포하자'는 구호와 대동한마당 개최, 복지회관내 여학생을 위한 편의점 설치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마감이 지난 1일 완료됨에 따라 7일·11일·13일에 선거유세와 홍보물부착등 선거운동의 규칙을 후보자에게 통보하는 회의를 11일 열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는 14, 15일 양일간 단대별로 진행되며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인복위 운전특강

학생회관 매점서 수강증 발부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지난 3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서초동 남부터미널에 위치한 한양운전학원과 공동으로 운전특강을 실시한다.

20회 수강에 한하여 1종 11만5천원, 2종 1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실시되는 이번 특강에 신청할 학생들은 학생회관 1층 매점에서 1종 1만5천원, 2종 1만원을 내고 수강증을 구입한 후 잔액을 해당학원에 납부하면 된다.

장기수의 겨울나기

◇…창살에 매달린 진실

낙엽도 떨어질 자유가 있는 반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 중에서도 천하의 근본이라는 농민의 사람답게 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지금.

정당한 의사표현에도 농민운동가가 부당하게 구속당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고.

나랏님네들.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하신 그 처사는 농민없이 모래위에 집을 지으려는 의도이신가요.

◇…입시 悲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문구를 충실히 실행한 이들이 있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某여대, 某과교수들이 입시생들의 돈을 받고 함께 쇠고랑을 찬 일이었다고.

교수님들,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혼탁해진 사회분위기는 어쩌시렵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고황골 곳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불어온다고 하여 노트子 알아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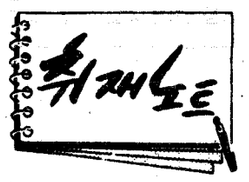
장기수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하는 편지쓰기운동과 그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일일술집등이 따뜻한 온기의 진상이라고.

노트子 생각키에 이러한 온기가 고황골을 덮는다면 난방시설 없이도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것 같소이다.

◇…노동자는 따로 울지 않는다.

최근 과기처가 홀로 시대를 역류해 화제.

과기처에서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에게 노조의 역할에 대한



某종의 공문을 띄워보낸 것. 그뒤 각 연구기관의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는데,

ILO가입을 앞두고 포괄적인 단결을 보장하기보다 구태의연함으로 맞서는 장관나으리! 노동자는 결코 따로 울지않는다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을 목청껏 외치며 서천골을 누비는 官이 있다하여 노트子 알아보니.

한창 공사중인 국선관의 위치를 앞당겨 달라는 학교측과 시공자들간의 행정착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었다고.

결국, 지구는 둥글기에 제자리로 온다는데, 학교측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노트子 자못 궁금하외다.

◇…청와대 직통전화

현대판 '신문고'가 설치된다 하여 노트子 알아보나.

No나랏님 계시는 청와대에 1일부터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어린'백성들의 의견을 그 넓으신 귀로 들어주시겠다고.

통화비는 수신자부담으로 절약하고, 전화번호는 물어보나마나 629-5060.

◇…No냐 YeS냐?

총선 전 민자당내 대권후보 지명을 놓고 No나랏님이 골치를 앓고 있다 하여 노트子 알아보니.

No를 외치고 싶은 No나랏님과 YeS를 주장하는 YS대표간의 마찰 때문이라고.

'옛말에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긴 하나 No와 YeS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는 영 No 같소이다.

朔風

정부 과연 경제정의 목적인가?

지난 1일은 현대가 그렇게 갈망하고 서둘러 왔던, 일간지 '문화일보'의 창간일이었다. 그러나 자축분위기도 살리지 못할 만큼 현대 식구에 있어서 충격적이고 침통한 하루였을 것이다. 현대그룹의 주식변칙 증여에 대한 세금액이 1천3백61억원으로 확정, 발표된 것이다.

현대와 재계측은 침통함과 함께 향후 추세에 대한 관망을 하기에 바빴다. 국세청의 추정세액 발표와 관련 세간과 언론에 회자되었던 6공과의 불화, 정치적인 보복등의 루머를 제고해 볼 수 밖에 없는 엄격한 법적용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주위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던 차였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자본이득, 특히 주식 이동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인 것처럼 과세를 소홀히 해오지 않았던가. 또한 그이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불로소득과, 착취라는 모순된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 그동안의 과세 세법이 허술하기만 하여서 인것은 아닐터이다.

제도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과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던 정부가 새삼스레 부의 세습을 차단하겠노라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정부태도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면 우선은 타당해 보인다.

주식의 변칙 거래를 이용한 교묘한 부의 세습은 경제 전체의 발전의 걸림돌이고 사회정의상 응징해야 마땅하기도 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번 한진 그룹등 몇 사례는 일부 계열사 조사에 그쳤으며 이번의 현대에 대한 조사는 매우 전면적이고 강력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인 감을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현대 정회장 일가의 엄청난 규모의 부당이익에 대한 세금추징의 법적 근거를 찾는데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법적 근거상 상속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에서 어렵게 추징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각 일간지에 국세청장이 인터뷰를 빌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음을 밝히는 의도 역시 그 전후의 고민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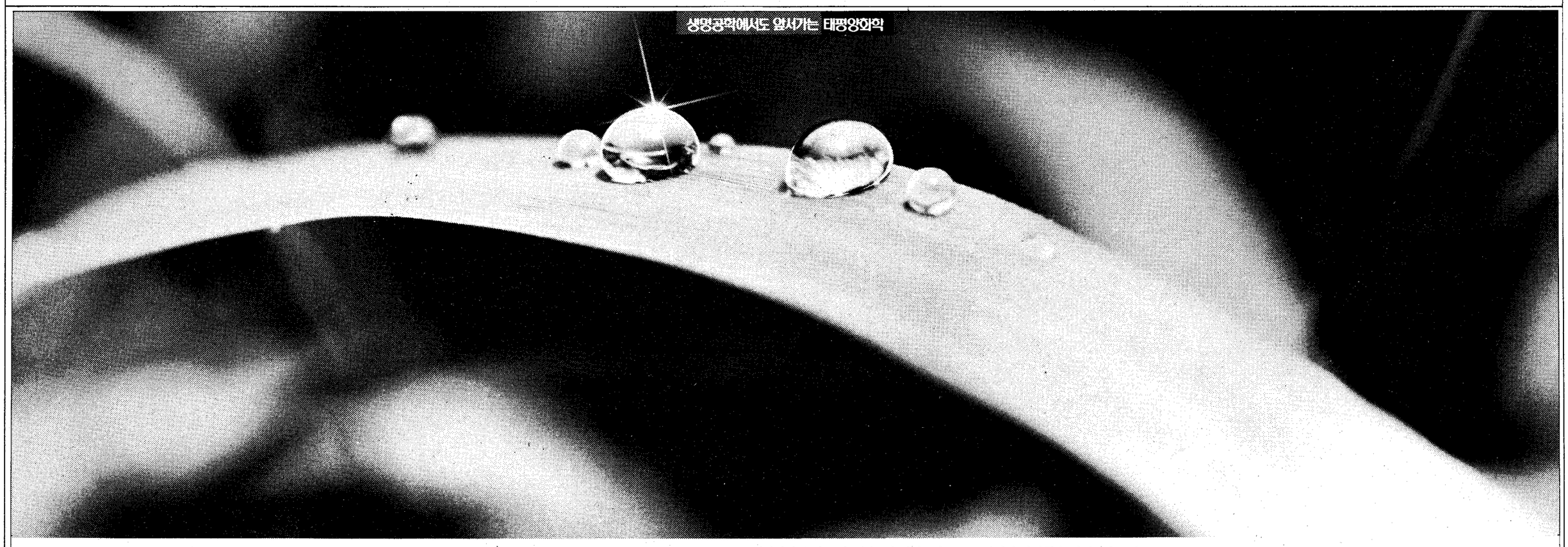
사태추이를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는 재계와 국민들은 정부 당국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발표 및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의심스러운 정치와 재계의 역학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풀 수 없다.

적자 경제에 연유한 계책일 수도 있고 새삼 예쁜자식에게 매 한대 더준다는 계기일 수도 있으며 내년 4차례의 선거를 앞둔 사전 선거자금 모집작업이라는 이야기도 항간에 떠돌았지만 경쟁그룹에 대하여 이전에 보여준 호의적인 사례에 비해 공평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 세금추징액이 단일사만으로는 사상 최대의 규모이며 그 법적용의 의지가 이례없이 강력하게 표명된 이번 발표는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의 응전으로 인해 그 파장이 꽤 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하학적 수치인 이번 추징액은 현대의 15만 종업원중 절반가량이 1년동안 번돈을 하루아침에 까먹는 액수라 한다. 이런저런 합수관계와 역학관계를 떠나서 소시민인 우리로서는 그 비윤리적인 기업인의 생리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해관계에 부합하던 정부가 급전환하여 도덕적인 모습으로 기강을 잡겠노라 의연함을 보이는 것도 별로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정직성과 공명성의 명분을 가지고 칼을 빼든 기타 변수들과 어우러져 각양의 모습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旌〉



대자연의 순수한 입김으로 피어나는 이슬꽃—
이 순수함을 생각하며 화장품을 만듭니다.

대자연의 숨결로 맑고 깨끗한 새벽공기를 머금고 꽃잎에 맺히는 투명한 이슬꽃 — 그 맑고 투명한 이슬에는 순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도 이슬같이 항상 순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바로 피부의 순수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화장품을 만들면서도 순수한 이슬을 생각하고 그 순수함을 배우고 따르는 아모레 — 아모레의 모든 화장품은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아모레 순정은
17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 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